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람 데오는 in the presence of 를 의미하는 코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명사 Deus를 부사처럼 사용하여 Deo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라틴어로서 우리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 코람 데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전의식(神前意識)' 즉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한자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코람 데오는 영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 하신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면 타당한 의미입니다마는 이 코람 데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께서 앞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코람 데오는 마틴 루터가 맨 처음 사용한 말이었는데 그는 마음 속에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코람 데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고 또한 순례자가 되기도 했으며 온각 고행과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병행하며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틴 루터가 사용한 이 코람 데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람 데오와는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과연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아무리 변론하기를 좋아할 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우리 인생들은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 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나아가게 되면 필경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율법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그치지 않았고 이런 저런 규례들을 만들어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자부하였던 바리새인들 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우리들을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25절에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운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신다 즉 우리들의 죄를 눈감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눈감아주시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졌던 질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오늘 본문 9장에 이미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의롭게 되는 확실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